

1920년대 일본아동문예잡지 『긴노후네』와 조선동화*

박종진**

국문초록

이 논문에서는 일본 근대 아동문예잡지 『긴노후네』에 게재된 조선동화 12편의 내용을 소개·분석하고, 시대적, 사회적 배경을 살펴보았다. 또한 조선동화의 특징을 정리하고, 문장과 삽화를 통해 그 의미를 짚어보았다.

『긴노후네』에 조선동화가 집중적으로 실린 것은 창간 후 2, 3년에 불과하지만, 잡지의 대내외적인 활동이 가장 활발하고 다양하게 전개되면서 많은 독자를 확보해가던 시기였다. 이전부터 발간되던 조선설화집의 영향으로 조선동화의 인지도가 높았을 뿐 아니라, 『긴노후네』가 22년에 실시한 ‘동화·동요 강연부’의 조선 순회강연도 조선에 대한 관심을 모았던 요인으로 작용했다. 12편을 재화한 작가의 서술방식은 동일하지 않았지만, 대부분 일본에 유포되어 있던 조선동화를 바탕으로 서사전개를 크게 변형시키며 재화라기보다 창작에 가까운 작품이 많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서사전개나 사용도구, 등장인물이 과감하게 변형되면서 조선동화는 재화에서 창작으로 나아가는 과도기적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삽화를 통해 정형화되고 상징화된 조선의 이미지가 동원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 주제어: 조선, 조선동화, 동화, 『긴노후네』, 동화강연, 오키노 이와사부로, 미디어이벤트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6S1A5B5A01023133)

**전주교육대학교, pmirine92@gmail.com

목 차

- | | |
|--|----------------------------|
| 1. 들어가며
2. 『긴노후네』 수록 동화의 성격
3. 조선동화 게재의 시대적·사회적 배경 | 4. 조선 동화 목록 및 분석
5. 나가며 |
|--|----------------------------|

1. 들어가며

이 연구에서는 아동문학의 장르가 점차 세분화되면서 장르적 특성을 명확히 해나가던 근대시기를 배경으로, 일본의 아동문예잡지 『긴노후네』¹에 게재된 조선동화²의 내용과 의미를 짚어보고자 한다.

일본 아동잡지에 게재된 조선동화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지 않다. 근대시기 일본 아동잡지에 조선동화가 수록된 예를 찾아보기 쉽지 않은 것과 함께 일본아동잡지 자체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도 미진한 까닭이다.

일본 아동잡지에 대해서는 이재철의 논문이 이른 시기의 연구이다. 이재철(1990)³은 「한일 아동문학의 비교연구(1)」를 통해서 근대시기 일본에서 발간된 아동잡지들을 분석, 한일 아동문학의 영향관계를 검토했다. 이

1 『긴노후네=긴노호시(金の船=金の星)』(1919년 11월 창간), 사이토 사지로(齋藤佐次郎, 1893-1983)는 편집을 담당하고, 요코야마 도시야쓰(横山壽篤, 1887-1975)가 발행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후 사이토와 요코야마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1922년 제4권6호부터 잡지명을 『긴노호시(金の星)』로 바꾸고 사이토가 편집 및 발행책임을 전담하게 된다. 1928년5월부터 사이토는 편집·발행에서 손을 떼고 미나미 다쓰히코(南達彦, 1898-1963)가 담당, 잡지명도 『소년소녀 긴노호시(少年少女金の星)』로 바뀌면서 잡지성격도 대중지로 달라진다. 그러나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1929년7월호로 폐간에 이른다. 현재, 사이토가 편집을 담당한 1919년 11월 창간호부터 1928년 10권4호까지 전101권을 대상으로 복각판 『雜誌 金の船=金の星復刻版』(ほるぷ出版, 1983)가 나왔다. 본 연구에서는 복각판을 기본교재로 하고, 직접 인용 이외에는 통칭으로 『긴노후네』를 사용한다. 또한 본문에 인용한 일본어문장은 필자가 번역했다.

2 『긴노후네』에서는 특별히 조선동화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다. 목차에는 장르명으로 '동화'라고만 적혀 있다. '조선설화의 재화'라는 것이 맞는 표현이겠지만, 이 논문에서는 같은 잡지에 실린 다른 동화와 구분하고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편의상 조선동화라고 불렀다.

3 이재철, 「韓日兒童文學の比較研究」, 『韓國兒童文學研究』創刊號, 韓國兒童文學學會, 1990.7, 7~20면.

재철은 “일본의 아동잡지들은 순수 아동문예지와 대중지를 망라하여 모두 군국주의적 이념을 선전하고 어린이들에게 교육하는데 그 編輯의 指向性を 두고 있었다.”(20면)고 개관했다. ‘편집 지향성’은 잡지별·시기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모든 잡지를 일괄적으로 평가한 시각은 문제적이지만, 한일 아동문학연구 개척기에 일본 아동잡지의 큰 흐름을 제시하는 연구로 한일 아동문학 연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기본 자료이다. 오다케 기요미(2002)⁴는 메이지기 이후 해방전까지 한국과 일본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양국의 아동문학·문화사를 정리했다. 한일 아동문학 비교연구에서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이상금(2005)⁵은 방정환 평전 『소과 방정환의 생애—사랑의 선물』 가운데에서 1920년대에 화려하게 꽃핀 일본의 아동잡지들이 한국 아동문학 개척기에 미친 영향을 꼼꼼하게 추적했다. 이상금에 의하면, 방정환은 일본 아동문화에서 획득한 것들을 ‘환골탈태’를 통해 조선으로 수용하려 노력했다고 분석한다. 염희경(2007)은 『어린이』의 창간에 『긴노후네』의 다양하고 종합적인 성격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설파했지만, 이 시점에서는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영향관계 규명에까지는 이르지 못 했다. 이정현은 방정환의 서양동화집 『사랑의 선물』(개벽사, 1922.7)에 실린 동화들의 번역 원전을 추적했다. 방정환은 일본유학을 통해 접한 서양동화를 우리나라에 소개하려고 노력했는데, 당시 일본에서 발간되고 있던 서양집 및 아동잡지를 번역원전으로 삼았다. 이 번역원전 추적을 통해 방정환의 외국문화 수용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조경숙(2011)⁶은 잡지 『소년세계』에서 표방하고 있는 조선의 모습을 분석하며 일본 제국주의 육

4 大竹聖美, 『植民地朝鮮と児童文化—近代日韓 児童文化・文學關係史研究』, 社會評論社, 2008.

5 이상금, 「부록2 소과가 만난 일본 아동문학」, 『소과 방정환의 생애 사랑의 선물』, 한림출판사, 2005, 686~735면.

6 조경숙, 「메이지기 아동잡지 『소년세계』와 조선」, 『일본학보』 89, 한국일본학회, 2011.11, 191~204면.

망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를 고찰했다.

최근 연구에서는 개별 작품에 주목해서 근대시기 한일 아동문학의 관계를 조명하는 시도가 많아졌다.⁷ 그러나 여전히 근대 시기 한일 아동 잡지의 전체관계를 부감하는 연구는 미답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1920년대 한국과 일본의 아동문예잡지 『어린이』와 『긴노후네』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일 아동문학의 수용교류사를 연속적으로 추적해왔다. 우리 아동문학의 길을 개척해 나간 방정환은 잡지 『어린이』를 통해 조선 아동들에게 읽을거리를 제공하고 소년회라는 이름아래 한데 뭉치게 하면서 식민지 조선의 해방을 꿈꾸게 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억압당하는 식민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점령국 일본에서 배우고 이를 뛰어넘어야 하는 이중의 과제를 해결해야만 했다. 『어린이』가 발간되기 이전에 일본에는 40여 종이 넘는 아동잡지가 발매되고 있었다. 방정환은 일본유학을 통해 다이쇼기 자유교육을 바탕으로 한 일본문화를 접하고 이때의 경험을 『어린이』 운영에 최대한 활용한다. 이 가운데 편집체제와 게시물에 가장 직접적이고 뚜렷한 영향을 미친 것은 『긴노후네』이다. 일본 아동문학에서의 유입이 확인되면서도 우리의 풍토에 맞는 변용이 일어났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잡지 『긴노후네』에 수록된 조선동화에 주목해 보고자

7 이정현, 『方定煥의 翻譯童話研究: 〈サラエソンムル〉を中心に』, 大阪大學박사학위논문, 2008; 김경희, 「방정환 ‘귀신동화’의 형성과 의미 연구」, 『국문학연구』 제32호, 국문학회, 2015, 247~277면; 장정희·박종진, 「근대 조선의 『한네래의 승천』 수용과 방정환」, 『동화와 번역』 제30권, 건국대동화와번역연구소, 2015, 215~243면; 박종진, 「〈왕자와 재비〉에 나타난 방정환의 내러티브-번역과 서사변형의 특징」, 『한국아동문학연구』 제30호, 한국아동문학학회, 2016.97~125면; 박종진, 「방정환의 번역작품 연구 「귀먹은 집오리」와 「불노리」를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제35집, 한국근대문학회, 2017, 203~233면; 박종진·최경희, 「1920년대 아동 자유화운동화 아동문예잡지-『어린이』와 『긴노후네』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문학연구』 제33호, 한국아동문학학회, 2017, 89~118면; 김영순, 「『어린이』지와 일본 아동문예잡지에 표상된 동심 이미지 고찰」, 『현대문학의 연구』 62, 한국문학연구학회, 2017, 7~57면; 엄희경, 「근대 어린이 이미지의 발견과 번역·번안동화집」, 『현대문학의 연구』 62, 한국문학연구학회, 2017, 59~117면. 등.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긴노후네』에 수록된 동화의 성격을 고찰했다. 그런 연후에 시대적·사회적 배경을 짚어보았다. 이와 함께 『긴노후네』에 실린 총 12편의 조선동화를 목록으로 정리하고 내용을 소개할 것이다. 또한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특징과 의미를 문장과 삽화를 통해 짚어보고자 한다.

2. 『긴노후네』 수록 동화의 성격

제1차 세계대전이 가져온 경제적 호황을 배경으로 발흥된 다이쇼 자유 교육의 움직임은, 아동의 자유와 창조성에 주목하며 아동예술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제공하는 문화운동으로 작용했다.⁸ 근대적인 교육제도 정비와 함께 아동들의 읽기쓰기 능력이 향상되며 이에 호응하듯이 다양한 층위의 아동잡지들이 속속 창간되었다. 이 시기에 발매된 아동잡지는 문예적인 것, 대중적인 잡지를 포함하면 4, 50여개 이상의 매체를 헤아릴 정도가 되었다.⁹ 이런 가운데서 1910년 이전, 즉 이와야 사자나미로 대표되는 메이지기 ‘오토기바나시’의 교훈성과 설화적 성격에서 벗어나서 근대적인 예술성의 확립을 주장한 것이 ‘동화·동요’운동이다. 『良友』(1916)를 비롯해서 『赤い鳥』(1918), 『金の船』(1919), 『童話』(1920) 등 아동문예잡지가 그 움직임을 선도했다. 이 시기에는 아동잡지는 물론 일반 부인잡지와 신문에도 ‘동화’가 발표된 정도로 시대를 풍미했다. 그러나 동화유행은 장르명이 선행된 감이 있어서, ‘메이지의 오토기바나시와 본질적으로는 그다지 다를 바 없는 작품’도 있었다. 또한 ‘압도적으로 외국 동화의 재화가 많고, 예술성이 높은 작품은 아무래도 부족했다.’¹⁰ 동화가 근대적 의미를 갖고 새롭

8 박종진, 앞의 논문, 2017, 90~91면.

9 小林弘忠, 『〈金の船〉ものがたり』, 毎日新聞社, 2002, 201면.



[그림1] 『긴노후네』창간호(1919.11) 표지

게 등장해도 실질적인 작품으로 나타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했던 것이다.

『긴노후네』는 아동을 주 독자대상으로 하고, 동화와 동요장르에 주력했던 아동문예 잡지이다. 한 해 앞서 창간된 『아카이토리』는 교훈적이고 통속적인 메이지기의 ‘오토기바나시’에 대항하여 예술성을 중시하는 ‘동화·동요운동’을 전개했다. 이런 사회적인 기운에 동조하며 창간된 『긴노후네』 역시

‘동화’와 ‘동요’에 중점을 두면서 새로운 아동문학의 흐름을 만들어나 갔다. 『긴노후네』는 ‘어디까지나 어린이의 것’(창간호 광고)이라는 포부를 안고 시작된 잡지로 창간초기부터 ‘시적, 예술적 높이를 잃지 않으며, 해외 문예문화의 이식, 일본 역사와 전통에 대한 재인식, 지방색·향토색의 중시, 재미, 알기 쉽도록 하는 배려 등의 편집방침’¹¹으로 일관했다는 자부가 있다. 다이쇼기 아동문예잡지에서 ‘동화’라는 장르는 소설까지 포함되는 넓은 개념으로 형성되었다. 잡지의 서사 장르는 한 번에 읽어낼 수 있는 단편 위주의 동화부터 장편 연재(2화~12화)물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형식과 분량에서 소설이라 할 만한 작품들도 모두 동화로 분류되었다. 내용면에서는 민담, 일본고전의 재화, 외국문학의 번역, 창작동화 등 다양한 성격의 동화가 게재되었다. 이밖에 역사이야기, 과학이야기, 자연이야기, 만화도 적극적으로 게재, 기타 잡지와 차별화를 꾀했다.

『긴노후네』에 수록된 동화의 성격은 크게 재화¹²와 창작으로 나누어 볼

10 菅忠道, 『日本の児童文學 1 總論 増補改訂版』, 大月書店, 1956, 101면.

11 齋藤佐次郎, 「刊行にあたって」, 『雑誌金の船 = 金の星復刻版別冊解説』, ほるぷ出版, 1983.

12 사토 모토코는 ‘재화’에 대해, 구승문학이나 문자문학이나 원텍스트가 있을 때, 그것을 의식해서

수 있는데, 재화에는 원전을 강하게 의식하며 번역한 것과 외국동화나 일본 민담에서 소재를 가져와 동화로 고쳐 쓴 것을 찾아볼 수 있다.

창간호부터 1928년 4월(10권4호)에 이르기까지 거의 빠짐없이 외국 동화가 실려 있다고 해도 좋을 정도인데, 창간호만 넘겨보아도 「검은 공주」, 「재과 콩넝쿨」, 「신의 선물」, 「세 마리 아기 토끼」 같은 동화가 있다. 그러나 제목과 서사전개가 원작을 그대로 번역하고 있지 않은 작품이 대부분이다. 목차에는 ‘동화’로 표시되어 있지만, 본문에 원작을 밝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번역이라는 표시도 나타나 있지 않는 경우도 많다.¹³ 「너구리의 코골이(狸の高鼾)」(『긴노후네』, 20.3)는 하나코가 할머니가 좋아하는 보타모치(떡)과 아마자케(술)를 들고 할머니집을 찾아가다 너구리를 만나는 이야기이다. 결말에는 할아버지가 하나코와 할머니를 구해주고 너구리 뱃속에 돌을 집어넣어 불에 태워 죽인다. 줄거리에서 「빨간 모자」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그림이야기에서 ‘하나코’ ‘너구리’ ‘보타모치’ ‘아마자케’ 등 등장인물의 이름과 소품을 완전히 일본식으로 바꾸어 전혀 다른 이야기처럼 되어 있다. 근대동화를 확립해 가는 과정에서 외국동화의 번역은 국내창작으로는 다 채우지 못하는 잡지내용을 풍부하게 하고 문학경험의 축적을 위해 필수적인 과정처럼 여겨졌다. 번역과정에서 외국의 일상생활이나 풍물을 알지 못하는 독자를 위해 번역(재화)자는 배경을 일본으로 바꾸어 전달하기도 하고 원문에 없는 일본적 정서를 넣기도 하면서 “이문화와 일본 문화의 접점을 끊임없이 모색”¹⁴했다. 외국의 다이쇼 데모크라시와 함께

새로이 텍스트를 문자화하는 작업 및 그 결과 생겨난 텍스트를 의미하는 광범위한 범위를 가리키는 단어라고 했다. 佐藤宗子, 「〈再話〉とはなにか」, 『「家なき子」の旅」, 平凡社, 1987, 145면.

13 1920년대에는 외국 작품을 재화하거나 번역해도 출전을 밝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뿐만 아니라 등장인물이나 배경을 완전히 바꾸어 지역색을 완전히 지우거나 모티프만을 가져와 일본식으로 서사를 변형시키는 작품이 많아 원래 작품을 특정해내기 힘든 것도 시기적인 특징이었다. 사토 모토코는 『긴노후네』에 게재된 재화의 특징에 대해 “원작을 전혀 밝히지 않고 상당히 자유롭게 바꾸어 쓰거나 변안한 작품이 많다.”고 분석했다.(佐藤宗子, 앞의 책, 170면.)

서구문물이 물밀 듯 쏟아져 들어오는 1920년대에도 외국 문물 가운데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존재했고, 작가가 독자들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고쳐 썼다는 것은 짐작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항아리의 노래」(22.12), 「진배의 코」(24.8) 등은 일반 대중무대극을 동화로 꾸며낸 것으로 어리석고 욕심 많은 어른에 대한 풍자를 담고 있으며 어린 독자들에게 웃음과 함께 교훈을 전달한다.

잡지 발간 이전부터 일본에 소개된 그리스 신화, 이솝이야기, 그림형제, 안데르센, 아라비안나이트 등의 이야기,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15소년 표류기」, 「소공자」, 「집 없는 아이」 등 세계명작동화를 원전으로 하는 동화들도 게재되었다. 잡지에는 단편으로 실리기도 하고 때로는 특집호로 꾸며 관련 작품을 집중적으로 소개하기도 했다. 「세계명작동화집 안데르센호」(20.10), 「그림호」(23.4), 「아라비안 나이트호」(23.10), 「제2아라비안 나이트호」(23.11), 「일본 역사동화호」(24.2), 「중국전기동화호」(24.3), 「안데르센 걸작동화호」(24.4) 등은 특집명만 보아도 원전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가운데 조선동화는 비교적 ‘조선’이라는 표기가 본문에 들어 있는 경우가 많고, 이야기의 모티브를 가져와 크게 고쳐 쓴 재화가 대부분이었다.

편집을 주관했던 사이토 사지로는 잡지 내에 특별히 엄격한 통일성이나 편집 체계를 강요하지 않고 작가들의 자유로운 글쓰기를 상당히 폭넓게 수용하고 있었다. 이런 특징들은 창간호부터 시도되던 창작동화, 기존 작가뿐 아니라 독자들의 글쓰기를 장려하게 되어 창작동화로 나아가는데 기여한 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문을 통해 논하기로 하고 이 논문에서는 조선동화를 집중적으로 고찰한다. 다음 장에서 조선동화가 게재된 배경과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14 原昌, 「コラム翻譯表現の(日本化)」, 『はじめて學ぶ日本児童文學史』, ミネルヴァ書房, 2001, 59면.

3. 조선동화 게재의 시대적·사회적 배경

1) 시대적 배경—동화의 황금기와 「조선동화집」 출간 유형

『긴노후네』에 수록된 조선동화를 생각할 때 무엇보다도 『긴노후네』 발간시기에 일본 아동문학이 융성기를 맞이하고 있던 시대적 배경을 놓칠 수 없다. 『긴노후네』에 ‘조선동화’가 집중적으로 게재된 1920년대 초부터 1923년까지는 일본 아동문학에서 두 번 다시 보기 힘든 융성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편집자 사이토의 회고에 의하면 “그때까지 오토기바나시밖에 모르던 아동들이 아동문학으로까지 성장한 동화를 읽고 진정으로 재미있는 독물을 접한 것으로 동화가 폭발적 인기를 얻었다”¹⁵고 한다. ‘아동문학의 르네상스’¹⁶로 일컬어지기도 하던 시기에 『긴노후네』는 독자수가 크게 확대되고¹⁷ 내용면에서도 다양함과 풍부함을 자랑했다. 특히 오키노 이와사부로¹⁸를 ‘긴노후네의 객원’으로 맞이한 22년 이후는 잡지 외부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독자와의 접촉도 빈번해진다.

『긴노후네』에는 일본 옛이야기, 인도, 중국, 아라비아, 이태리, 독일, 미국 등 다양한 나라의 이야기가 게재되었고, 이 이야기들은 각국 문화에 대

15 齋藤佐次郎, 「〈金の船〉〈金の星〉の思い出話」, 鳥越信編, 『新選日本児童文學1』, 小峰書店, 1959, 351면.

16 齋藤佐次郎, 같은 책.

17 “『赤い鳥』(1918), 『おとぎの世界』(1919), 『金の船 = 金の星』(1919), 『童話』(1920) 등 4대 잡지가 한꺼번에 발매되던 시기는 1920년에서 1922년까지 약 2년 반 정도 되는 기간이다. 이 시기에 대부분 잡지들의 독자수가 가장 많았던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佐藤宗子, 앞의 책, 153면.

18 沖野岩三郎(1876~1956), 작가, 평론가, 1918년10월 『讀賣新聞』에 발표한 동화 「黒八大明神」가 『긴노후네』창간을 준비하던 편집자 사이토의 눈에 띄어 창간호에 동화 「馬鹿七」를 집필하게 된다. 이후 1928년4월 「消えぬ女」까지 『긴노후네』에 작품을 꾸준히 실었으며, 창작과 함께 동화구연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했다. 1924년 『긴노후네』에 설치된 동화강연회 강사로 일본전국은 물론 조선, 만주, 대만 등지를 돌며 강연회를 가졌다. 조선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경과 함께 뛰어난 심미안을 지닌 흔치 않은 일본 지식인이었다. 작가에 대해서는 大阪國際児童文學館編, 『日本児童文學大事典第一巻』, 大日本図書, 1993, 165~166면 참조.

한 흥미를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독자의 흥미를 잡지로 유도할 뿐 아니라 잡지의 내용을 다양하고 풍요롭게 하는 역할을 했다.

이와 관련해서 두 번째 배경으로 『긴노후네』에 조선동화가 게재되기 이전부터 일본에는 조선설화집이 다수 발간되어 조선동화가 유포되어 있었다는 점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일본어로 간행된 조선설화집으로는 대표적으로 다카하시 도루(高橋亨)의 『조선 물어집(朝鮮の物語集附俚諺)』(京城: 日韓書房, 1910), 다카기 도시오(高木敏雄)의 『신일본교육무카시바나시(新日本教育昔話)』(東京: 敬文館, 1917), 미와 다마키(三輪環)의 『전설의 조선(伝説の朝鮮)』(東京: 敬文館, 1919)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 설화집을 통해 조선문화와 조선설화가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¹⁹ 조희웅(2005)²⁰에 의하면, 이 가운데에서도 가장 이른 시기에 나온 다카하시 도루의 『조선 물어집』은 “자료 출처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 없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알 수 없지만, 그 내용으로 미루어 대체로 문헌설화집의 것을 再話한 것들로 생각되며, 비교적 흥미있는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선집한 까닭에, 이 책에 수록된 이야기들은 훗날 발간된 유사한 자료집들의 내용구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한다. 실제로 마쓰무라 다케오(松村武雄)의 『일본동화집<조선부>』(1924), 조선총독부의 『조선동화집』(1924), 나카무라 료헤이(中村亮平)의 『조선동화집』(1926) 등 조선동화집 내용구성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조선은 물론 “일본에서도 1920년대까지 조선동화는 하나의 출간 유행”²¹이었다고 할 수 있었다. 일본 학자들에 의한 조선설화 채집 및 조선설화집 간행에는 일제가 강제 점령한 조선의 민족성과

19 김광식에 의하면 해방 전까지 일본에는 50종 이상의 조선설화집이 발간되었다고 한다. 김광식·이시준, 『식민지시기 일본어 조선설화집 기초적연구』, 제이앤씨, 2014, 55면.

20 조희웅, 「일본어로 쓰여진 한국설화/한국설화론(1)」, 『어문학논총』 제24집, 국민대학교어문학회 연구소, 2005, 19면.

21 장정희, 「조선동화의 근대적 채록 과정 연구I」, 『한국학연구』, 고려대한국학연구소, 2016, 305면.

민족정신을 파악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 물론 제국 일본의 식민지 경영을 합리화하고 정당화시키려는 의도도 있었다. 이런 작품집들을 통해 일본 내에 이미 알려져 있던 조선동화가 재화과정을 거쳐 『긴노후네』에 실리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미디어이벤트로서의 조선순회강연

『긴노후네』는 다른 잡지에서는 시도하지 않았던 대외적인 활동, 즉 동요 발표회, 동화강연부·동요강연부 설치 및 활동 등을 통해 독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갔다. 『긴노후네』는 ‘동화와 동요의 보급을 위해’(22,2) 동화강연부를 신설하고 오키노에게 강사를 의뢰했다. 같은 해 4월에는 동요강연부도 신설해서 노구치 우조가 강사를 맡는다.

오키노의 동화강연과 노구치의 동요강연은 『긴노후네』의 대표적인 대외활동이 되었다. 강연부 활동은 일본 전국 각지에서 강연요청이 쏟아져 들어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독자투고란에는 다른 잡지를 구독하다가 새롭게 『긴노후네』의 재미에 눈뜨고 구독을 결심했다는 글이 심심치 않게 올라왔다. 이와 함께 강연부의 설치와 전국 순회강연 활동은 실질적으로 잡지의 인지도를 높였을 뿐 아니라 확대되어 가는 잡지의 세를 대내외적으로 선전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미디어 이벤트였다. 편집자 사이토 사지로가 “아동잡지가 강연부를 갖는다는 건 전례가 없는 일”²²이라고 자부할만한 신 운동이었던 것이다.

22 齋藤佐次郎, 앞의 책, 132면.



[그림] 『긴노후네』4권4호(1922.4)
동화강연부 발전 및 동요강연부 신설을 알리는 광고.

○『긴노후네』강연부의 발전

『긴노후네』가 동화강연부를 만들었다고 잡지상에 발표하자 각 방면에서 놀랄 정도의 환영을 받았고 속속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희망날짜가 부딪히기도 해서 일일이 다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별항에 기재한대로 불과 한 달 사이에 도쿄에서 3회, 지방에서 2회, 합계 5회의 강연에 출장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뒤를 이어 각지에서 지방에서 전보나 서면으로 의뢰가 들어오기 때문에 날짜 배

당에 곤란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난날 이후 간사이 각지와 조선 및 만주 각지에서도 꼭 강연을 와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매우 열성적인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회에 일대 비약을 할 생각에 3월12일에 오키노 선생이 간사이로 향해 동화강연 여행을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1일에는 조선 및 만주 각지를 향해서 출발하실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 오키노 선생의 형편이 닿은 대로 도쿄 및 지방 강연에도 갈 생각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동화 선전이 이렇게 해서 『긴노후네』의 힘에 의해 점점 보급되어 가는 일을 진정으로 기뻐해마지 않습니다.

○동요강연부 신설

『긴노후네』강연부는 동화부만 만들었는데 동요쪽도 꼭 마련해달라는 희망이 자주 들어오기 때문에 노구치 선생님에게 부탁드려서 동요 쪽을 맡아주시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동화든 동요든 희망에 따라서 강연으로 출장을 나가겠습니다.²³

23 『金の船』 제4권4호, キンノツノ社, 1922.4, 109면.

이 시기는 문화인에 의한 ‘구연동화(口演童話)’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시기였다(大竹, 2002). 이와야 사자나미는 눈으로 읽는 동화를 입으로 들려주는 것을 구연(口演)동화, 동화구연이라고 했는데, 『긴노후네』에서는 ‘口演’이라는 단어를 피해서 ‘講演’이라는 단어를 썼다. 한자는 다르지만 두 단어의 일본어 발음은 ‘こうえん’으로 동일하다. 이는 의식적으로 ‘口演’이라는 표기를 사용하지 않아서 이와야 사자나미나 이를 잇는 구연가들과는 차별을 두고자 하는 호칭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적인 활동 내용에 있어서는 많은 청중들 앞에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실제 오키노의 동화강연 활동도 동화구연 활동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활동보고에 따르면 오키노가 이야기를 들려주고 노구치가 동요를 부르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긴노후네』잡지 기사대로 강연회 대상 지역은 조선·만주 지역까지 확대 되어 조선 순회강연이 22년 5월10일에 시작된다.

본지 강연부가 얼마나 눈부신 활동을 하고 있는가 봐주십시오. 동화와 동요의 보급을 위해서 『긴노호시』는 여태까지 없었던 대 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화부 강사 오키노 이와사부로 선생은 삼천부의 잡지와 이만부의 그림엽서를 갖고 머나먼 조선과 만주로 출발하셨습니다. 또한 동요 강사 노구치 우조 선생님은 삼천부의 그림엽서를 선물로 동북각지를 순회하며 강연하고 계십니다.²⁴

‘동화와 동요 보급을 위해서’ 시작된 강연부 활동이 개시 한 달 만에 조선과 만주까지 지역을 확대해서 순회강연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이다. 오키노는 22년 7월(제4권7호)부터 강연부 보고를 통해서 조선 및 만주의 순회강연

24 『金の星』 제4권7호, 金の星社, 1922.7, 88면.



[그림3] 『진노후네』 권두화(1922.7),
조선강연 보고엽서

상황을 자세하게 보고했다. 제4권7호에는 부산을 시작으로 경주, 전주, 대전, 청주, 충주를 돌며 강연한 상황을 간략하게 소개했다. 활동보고와 함께 조선의 풍경—남대문, 경주 불국사, 동래부 세병교, 부산 제일철교, 경주 첨성대, 한강철교등—이 실제 사진과 함께 실리게 된다. 오키노는 “5월7일 도쿄역을 출발해서 부산을 시작으로 『진노후네』 강연부를 대표해서 조선 만주를 돌며 3개월간,

강연활동의 여행”을 마치고 도쿄로 돌아온다. 실로 “107회 강연에 청중은 합계 4만4천명”²⁵에 이를 정도로 큰 호응을 얻은 순회강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오키노의 보고서를 촘촘히 읽어 나가다보면 ‘조선의 아동(朝鮮の子供, 朝鮮人兒童, 朝鮮兒童)’ 몇 명이 강연을 들었고, ‘조선인 학교(鮮人の學校)’에서도 강연을 했으며, ‘조선인만 천 명 정도’ 모인 곳에서 강연을 했다는 문장이 나온다. 조선 전국을 돌며 이루어지는 순회강연에서 ‘조선의 아동’에게도 이야기를 했다는 이 이상한 설명에 대해 오키노 본인은 물론 일본 독자도 별다른 위화감을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당시는 일제가 강제 점령하고 10여년의 시간이 흘렀던 시점이고 조선은 일본의 한 지방(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던 시대적 배경이 있기 때문이다. 강연회 대상은 어디까지나 조선인이 아닌 재조일본인이었기 때문에 어쩌다 대상이 되는 조선아동이나 조선인에 대한 강연은 오키노에게는 특기(特記)사항이었던 것이다. 조선순회강연이 요란하게 선전되고 조선각지의 모습이 사진으로 소개되고 있어도 막상 ‘조선’은 소외되어 있는 이상한 ‘조선순회강연’이라고 할 수 있다.

25 「童話講演の旅を了へ沖野先生歸京」, 『金の星』, 제4권10호, 金の星社, 1922.10, 86면.

어쨌든 잡지에는 강연부의 강연에 대해 일본 국내뿐 아니라 조선, 만주 등에서 ‘활발하게 요청’이 오고 있어서 순회강연을 떠나지 않을 수 없다는 광고가 몇 번이나 게재된다. 오키노가 조선과 만주를 강연하며 현지에서 보내온 지역 사진들은 일본아동들에게 조선의 모습이 보여주는 중요한 기사²⁶였다. 또한 독자들에게 자기 지역에서도 강연회를 꼭 듣고 싶다는 열망을 일깨우고 각지에 동화회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는 잡지의 선전을 통해 판매부수를 확장시키려는 목적도 있었겠지만, 동화와 동요가 보다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깊이 파고드는 효과도 가져왔을 것이다.

1920년대 초반에 집중적으로 조선동화가 실리게 된 것은 오키노와 노구치 우조의 조선방문의 영향도 생각할 수 있다.

4. 조선동화 목록 및 분석

1) 게재 목록

앞에서도 적었지만 근대시기에 번역이나 재화에서 원전을 밝히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 위에 『긴노후네』에는 작가들이 상당히 자유롭게 바뀌어 쓰거나 번안한 작품이 많았기 때문에 조선동화로 판단내리기 어려운 작품들이 많았다. 이에 필자는 몇 가지 기준에 따라서 조선동화를 찾았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26 大竹聖美, 앞의 책, 142면.

I. 본문에 조선(朝鮮)이 언급되어 있는 것-9편

- 「작은 이의 숲」(橘逸雄, 20.3), 「시험문제」(沖野岩三郎, 21.6)
「황금두레박」(沖野岩三郎, 22.11), 「맹꽁이」(沖野岩三郎, 23.2)
「현명한 판관」(沖野岩三郎, 23.2), 「게으름뱅이」(藤森淳三, 23.7)
「주인과 하인」(藤森淳三, 23.9), 「떡보」(齋藤佐次郎/久米舩一, 24.9)
「세계 제일장사」(齋藤佐次郎/久米舩一, 27.9)

II. 본문에 언급은 없지만, 조선동화의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것-2편

- 「허리 꺾인 참새」(楠山正雄, 20.4), 「이여송이야기」(沖野岩三郎, 23.1)

III. 본문에 언급은 없지만 명백히 조선이야기인 것-1편

- 「착한 할아버지와 나쁜 호랑이」(加納治夫, 21.8)

II의 「허리 꺾인 참새」는 「홍부전」이 일본에 들어와 정착된 경우이다. 다카기 도시오는 「허리 꺾인 참새」가 조선에서 수입되었으며 조선에서는 참새가 아닌 제비로 되어 있다고 분석했다.²⁷ 이여송은 임진왜란 당시 조선에 온 명나라 장수이다. 많은 군사로 적은 수의 일본군을 물리치고 우쭐대는 오만함을 경계하는 이야기이다. 오키노는 동화강연부 강연회를 위해 조선을 순례하는 여정을 그린 『살얼음을 밟으며 薄氷を踏みて』(23.5)에서 주인공이 동행인에게 ‘이여송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²⁸ 소설 속에는 목포에서 전주로 가는 일정사이의 일이라고 되어 있어 실제 일정과 맞추어 보면 1922년 5월 중순경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오키노는 「이여송이야기」가 조선이야기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조선강연회에서 돌아와 『긴노후네』에 게재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27 다카기는 또한 『宇治拾遺物語』의 참새보는 이야기도 역시 「홍부전」의 변안이라고 추측한다. (高木敏雄, 앞의 책, 208면), 또한, 신화학자 松村武雄도 『日本童話集(朝鮮部)』(1924) 해설에서 마찬가지로 견해를 보인다.

28 沖野岩三郎, 『薄氷を踏みて』, 大阪屋號書店, 1923, 147~148면.

이 밖에 서사전개에 있어서 조선이야기로 추측되는 작품도 있지만 「가짜 양가죽」(반쪽이 이야기), 「항아리 사기」(항아리 썩하기)처럼 서사전개가 많이 달라져 있고 배경이 완전히 일본화되어 광포설화의 변형인지 조선동화의 재화인지 특정할 수 없어 목록에서 제외한 작품도 있다. 「머리와 다리만 중오위 나리」(22.12), 「술 취한 여우」(24.3)는 삽화에 조선의 갓과 바지, 치마, 저고리 등 조선복장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중국복식이 같이 그려져 있고 중국(支那)이야기라는 것을 본문에 명기하고 있어 이 역시 제외시켰다.

이렇게 찾아낸 총 12편에 대해 간단한 줄거리와 함께 목록으로 정리해서 [표 1]로 제시했다. (*본문 서술상 편의를 위해 숫자를 붙였다.)

[표 1] 『긴노후네』에 수록된 조선동화 목록

번호	권호	발간일	제목	글	그림
동화①	2권3호	1920.3.1	小人の森(작은 이의 숲)	橘逸雄	岡本歸一
조선의 어떤 마을에 이팽(李彭)이라는 성실한 사람이 있는데 밤에는 남몰래 나쁜 짓을 일삼는다. 어느 날, 오른쪽 뺨이 부풀어 올라 유명한 의사에게 진찰을 받는다. 의사가 알려준대로 보름날 밤 숲속에서 작은이들을 만나는데, 작은이들은 이팽이 춤을 못 추자 왼쪽 뺨도 부풀게 만든다. 다음 보름날에 이팽이 멋지게 춤을 추자 작은이들은 이팽의 얼굴을 고쳐준다. 마을 사람들은 연유를 묻지만 이팽은 아무 대답을 하지 않는다. 이팽은 그 후 맘을 고쳐먹고 성실한 사람이 되었다.					
동화②	2권4호	1920.4.1	腰折れ雀(허리꺾인 참새)	楠山正雄	岡本歸一
한 마을에 자비심 많은 정직한 할머니가 있었다. 처마 끝에 등지를 튼 참새가 아이들이 던진 돌에 다치자 참새를 정성껏 돌본다. 참새는 날아갔다 박씨 하나를 물고 돌아온다. 박을 심자 커다란 박이 많이 열리고 박마다 쌀이 쏟아져서 마을 제일가는 부자가 된다. 욕심 많고 심술 맞은 이웃집 할머니가 이 소식을 듣고 참새 허리를 부러뜨리고 역시 참새에게 박씨를 받는다. 박이 열렸지만 이상한 냄새가 나서 병에 걸리고 박을 타보니 온갖 독충이 튀어나와 욕심 많은 할머니는 찢려 죽고 말았다.					
동화③	3권6호	1921.6.1	試験問題(시험문제)	沖野岩三郎	岡本歸一
조선의 이름 높은 천자님(天子様)이 평민복장으로 잠행을 다니다 대머리여인이 춤을 추고 젊은 남자는 눈물을 흘리며 노래하는 집에 들어가 사연을 듣게 된다. 가난 때문에 머느리가 머리를 팔아버리자 시부가 울고, 아들은 아버지를 달래는 노래를 부르고 머느리 역시 시부를 위해 춤을 추며 모두 울고 있었다는 이야기이다. 이에 감동한 천자님은 아들에게 과거를 보라고 권한다. 문제는 '아버지는 울고, 집주인은 노래하고, 부인은 춤춘다'였다. 문제의 답을 아는 이는 오로지 한 명 뿐이었다.					

동화④	3권8호	1921.8.1	善い爺さんと悪い虎 (착한 할아버지와 나쁜 호랑이)	加納治夫	岡本歸一
인정 많은 할아버지가 ‘우리’에 갇힌 호랑이를 구해주지만 오히려 잡아먹으려고 달려든다. 이에 길에서 만나는 다섯에게 의견을 묻기로 한다. 떡갈나무, 소, 두루미, 악어에게 차례대로 묻는데 하나같이 호랑이에게 할아버지를 잡아먹으라고 답한다. 마지막으로 다람쥐에게 묻자 처음부터 알려달라고 하고 호랑이는 우리에게 들어간다. 다람쥐는 우리를 단단히 걸어 잠그고 할아버지와 함께 그 자리를 떠난다.					
동화⑤	4권11호	1922.11.1	金の釣瓶(황금두레박)	沖野岩三郎	岡本歸一
백두산 기슭에 사는 젊은이는 나무를 하다 사냥꾼에 쫓기는 노루를 구해준다. 노루는 감사의 표시로 선녀가 내려와 목욕을 하는 용왕담을 알려준다. 젊은이는 용왕담에서 선녀옷을 감추고 선녀를 부인으로 맞이한다. 선녀가 두 아이를 낳자 젊은이는 날개옷을 보여준다. 이에 선녀는 아이들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간다. 슬피우는 젊은이에게 노루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두레박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라고 알려준다. 하늘에 올라가는 젊은이를 보며 노루가족은 축하의 말을 한다. 문장 끝에 ‘일본 미호 마쓰바라의의 날개옷이야기는 이 이야기를 고쳐쓴 것이리라’고 되어 있다.					
동화⑥	5권1호	1923.1.1	李如松のはなし(이여송이야기)	沖野岩三郎	岡本歸一
임진왜란 당시 명나라 장수 이여송은 오만의 군사를 이끌고 의주에서 평양으로 쳐들어왔다. 일본 군 선봉 고니시 유키나가는 이여송의 군사에 밀려 경성으로 퇴각했다. 이여송이 떠들썩하게 축하연을 벌이는 곳에 소에 탄 백발 노인이 나타나 잔치를 망치자 이여송을 화가 나 이상한 노인을 쫓아간다. 노인의 처소까지 쫓아간 이여송에게 노인은 작은 전쟁에 한번 이긴 것으로 교만에 빠지지 말라는 충고를 한다. 이 충고를 제대로 듣지 않던 이여송은 일본군에게 대패하고 자신의 태도를 반성한다. 훗날, 노인을 다시 찾아가지만 찾을 수 없었다.					
동화⑦	5권2호	1923.2.1	メンコン蛙(맹꽁이)	沖野岩三郎	岡本歸一
안면근이라는 노인에게 경운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 말이라면 뭐든지 반대로 한다. 아버지가 병이 들어 죽음을 맞이하면서 관을 꼭 강물 속에 넣으라고 유언한다. 이에 정신을 차린 경운은 아버지 유언대로 관을 물 속에 넣는다. 장마로 강에서 아버지 관이 떠오르자 아들도 강물 속으로 뛰어든다. 해마다 오늘월 경이면 압록강변에 수많은 개구리들이 모여들어 ‘맹꽁 맹꽁’하고 울어댄다. 사람들은 불효자 경운이 아버지 ‘면근(일본어로 맹꽁)’을 부르는 소리라고 한다.					
동화⑧	5권2호	1923.2.1	賢い裁判官(현명한 판관)	沖野岩三郎	岡本歸一
산중의 가난한 스님이 쥔신을 만들어 2냥의 돈을 받는다. 돌아가는 길에 주운 지갑에 20냥의 돈이 있었다. 스님은 음식점에 지갑과 자기 2냥을 맡기고 돈 임자를 찾는다. 길에서 돈 임자를 만나 지갑을 돌려주려하지만 돈 임자는 스님 돈까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툼이 벌어지자 판관은 지갑은 임자의 것이 아니라고 스님에게 지갑과 2냥을 모두 준다. 스님은 남자에게 지갑을 돌려주고, 남자는 마음을 고쳐먹고 스님의 제자가 되었다.					
동화⑨	5권7호	1923.7.1	怠け者(게으름뱅이)	藤森淳三	水島爾保布
경성에 사는 가난하고 게으른 젊은이가 나쁜 피로 잣장수 땔감장수, 생선장수를 속여 잣과 땔감과 생선을 빼앗다가 마침내 판가로 끌려가게 되었다. 젊은이는 거지 아이들에게 자신을 ‘아버지’					

라고 부르라고 한 뒤, 아이가 많아서 어쩔 수 없이 나쁜 짓을 했다는 거짓말로 관리까지 속여서 무죄 방면을 받는다.

동화⑩	5권9호	1923.9.1	主人と下男(주인과 하인)	藤森淳三	水島爾保布
-----	------	----------	---------------	------	-------

시골마을의 구두쇠가 몸이 반쪽밖에 없는 하인을 품삯 한 푼 주지 않고 부러먹는다. 주인이 과거를 보러가면서 데려가지만 번번이 주인을 골탕 먹인다. 화가 난 주인이 하인을 죽이려하지만 오히려 하인의 꾀에 넘어가 주인가죽이 모두 죽임을 당한다.

동화⑪	6권9호	1924.9.1	餅男(떡보)	齋藤佐次郎/ 久米紘一	岡本歸一
-----	------	----------	--------	----------------	------

이헌상(李憲尙)이라는 떡을 좋아하는 남자가 있었다. 중국에서 조선의 ‘가장 유명한 사람을 불러오라’는 요청에 떡보를 보내기로 한다. 중국관리는 학문이야기를 하고 이헌상은 떡이야기로 대답한다. 중국관리는 크게 감탄하여 융숭하게 대접한다.

동화⑫	9권9호	1927.9.1	世界一の力持ち(세계제일장사)	齋藤佐次郎/ 久米紘一	岡本歸一
-----	------	----------	-----------------	----------------	------

일본에 인왕이라는 험센 신이 있는데 세계 제일 험세다는 것을 자랑으로 삼았다. 그때 조선에 ‘가마’라는 장사가 있다는 소리에 조선으로 간다. 인왕은 가마가 사용하는 거대한 물건을 보고 상대가 되지 않겠다고 배를 타고 도망친다. ‘가마’가 쫓아와서 갈고리로 배를 끌어당기자 인왕은 하늘에 기원해서 나타난 칼로 갈고리를 끊고 일본으로 달아난다. 그 뒤 일본에서는 조선의 ‘가마’가 가장 힘이 세다고 믿고, 조선에서는 인왕이 가장 힘이 세다고 믿게 되었다.

[표 1]을 보면 다양한 작가명을 확인할 수 있지만, 가장 많은 조선동화를 게재한 동화작가는 오키노 이와사부로이다. 오키노는 오랜 세월 목사 생활을 하다가 1917년 「大阪朝日新聞」 현상소설 모집에 『숙명』이 당선되면서 작가의 길로 들어서서, 당선을 계기로 도쿄에 올라와 왕성한 작가활동을 펼치게 된다. 편집자 사이토 사지로는 잡지 창간 준비 중에 요미우리 신문에 실린 오키노의 동화를 읽고 “향토색 짙은 독특한 재미가 있어서 바로 오키노씨를 찾아가서 창간호에 작품을 실을 수 있었다.”²⁹고 한다. 오키노는 창간호의 「바보 시치馬鹿七」를 시작으로 창작동화, 수필, 번역, 재

29 平林武雄, 「『金の船』=『金の星』と沖野岩三郎」, 『雑誌金の船=金の星復刻版別冊解説』, ほるぷ出版, 1983, 153면. 오키노는 “소설·사론·전기·민속·종교·기행 등 온갖 분야에서 글을 썼다. 소년독물 집필량도 어마어마하고 발표지는 「日本少年」「少女の友」「少年俱樂部」「良友」「童話」「小學男性」「小學學生」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金の船」=「金の星」에 보낸 작품이 특히 많다. 작품은 족히 7,80편에 이를 것이다.”(154면)

화, 편지글, 기행문 등 100여 편이 넘는 다양한 형식과 내용의 작품을 수록, 명실상부 『긴노후네』를 대표하는 동화작가가 되었다. 「바보 시치」도 작가의 고향을 제재로 해서 옛이야기 풍으로 전개되는 동화이다. “바보 시치라고 무시당하고 놀림 받는 남자가 똑똑하다고 자랑하던 남자보다 월등하게 현명하다”는 이야기인데 작가의 인생관이 잘 드러나 있고 문학적인 재미를 주는 작품으로 “현재까지도 다이쇼기의 명작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³⁰ 오키노는 조선순회강연을 떠나기 전부터 종종 조선동화를 게재했는데, 순회강연을 다녀온 뒤에는 더욱 조선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독자들이 ‘조선동화를 너무 많이 소개하는 것 아니냐’ (『독자답화실』23.1)는 불평을 보낼 정도였다.

오키노 이와사부로의 뒤를 이어 등장한 후지모리 준조(藤森淳三)는 동화⑦ 「게으름뱅이」, 동화⑧ 「주인과 하인」을 재화했다. 이야기는 다카하시 도루가 1910년 발행한 『조선의 이야기집과 속담』에 실린 「무법자(無法者)」, 「반쪽이(片身奴)」와 각각 내용이 거의 유사하고 서사전개도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2) 『긴노후네』에 실린 ‘조선동화’의 특징

(1) 동화 서술방식-제화에서 창작으로

『긴노후네』에 게재된 ‘조선동화’의 특징을 보자면, 먼저 대부분 이야기가 ‘옛날옛날, 조선에’로 시작되어, 목차에 ‘동화’라고 되어 있기는 하나 민담의 전개방식을 따르고 있다. 이어서 사건이 벌어지는 구체적인 지명과 주인공의 이름을 밝힌다. 조선의 지명을 모르는 독자들은 한자만으로도 일본의 지명과 다르다는 것을 쉽게 느낄 수 있다.

30 沖野岩三郎에 대해서는 齋藤佐次郎, 『齋藤佐次郎・児童文學史』, 金の星社, 1996, 62~63면 참조.

동화① 「작은 이의 숲」

옛날, 朝鮮의 어떤 마을에 李彭이라고 해서 매우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동화④ 「황금두레박」

朝鮮 新義州와 支那의 安東사이를 흐르는 鴨綠江을 거슬러 깊이 깊이 들어가면 거기에 높고 높은 산이 있습니다. 이 산에는 여덟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도 長白山이라는 이름과 白頭山이라는 이름이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동화⑨ 「떡보」

옛날 朝鮮 시골마을에 李憲尙이라고 하는, 떡을 아주 좋아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오키노는 이야기를 “동화로 아이들 머리에 넣어주기 위해서는 그것을 잘 읽고 우선 자기 것으로 만든 연후에 자기의 창작으로 완성해야 한다.”³¹ 고 밝혔다. 이는 조선이야기를 동화로 만들 때에도 적용되는 것이었다. 무명의 백성들이 활약하는 민담과는 달리 조선의 지명과 조선식 이름을 밝히면서 새롭게 동화로 써내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목록에 제시한 줄거리만으로 특정 이야기를 떠올릴 수 있는 친숙한 이야기가 다수 있다. 그러나 서사전개의 친숙함을 배경으로 하더라도 거의 창작에 가까운 작품이 많았다.

대표적인 것이 동화① 「작은 이의 숲」이라고 할 수 있다. 서사전개에 있어서 「흑부리 영감」과 유사하지만, 얼굴이 이상하게 부풀어 오르는 병에 걸린 청년이 숲 속 작은 이에게 춤을 선보이고 병을 고치는 이야기이다. 「흑부리 영감」에서는 도깨비들이 할아버지의 구성진 노래를 듣고 노래주

31 沖野岩三郎, 『童話の創作と實演』, 訓導生活社, 1937, 2면.

머니로 착각하고 혹을 떼어가지만, 여기에서는 춤을 즐기는 작은 이들이 등장한다. 서사전개의 동력인 ‘혹’은 혹부리 영감처럼 태생적인 장애가 아닌 중도 변형으로 주인공의 나쁜 짓(밤에 도적 무리와 어울려 물건을 훔친다)에 대한 천벌의 형태로 나타난다. ‘도깨비’나 ‘오니’ 대신에 이세계 존재로 작은 이들이 등장하고 이들은 춤을 즐기는데, 나그네에게 춤을 요구해서 맘에 들지 않으면 그 별로 얼굴을 더욱 흉하게 만들어버린다.

작은이들의 맘에 드는 춤을 춘다는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얼굴이 깨끗하게 낫는다. 일본의 「혹부리」는 이웃집 혹부리가 등장하며 대립형 이야기로 전개되는데, 여기에서는 이팽이 단독으로 두 차례 도전해서 얼굴의 기형을 고친다. 결말에는 주인공이 맘을 고쳐먹고 착한 사람이 된다는 교훈까지 더해져 권선징악의 교훈성이 추가되었다.

동화③ 「시험문제」는 상가승무노인탄(喪歌僧舞老人歎)이야기이다. 백성을 살피는 군주, 부모에 대한 효성, 그리고 효성이 높으면 평가받아 나라의 일군이 되는 이야기 구조는 짧으면서도 극적이고 독자들에게 이야기를 통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 동일 유형의 이야기는 이와야 사자나미의 『소년세계』에 「진장왕(陳張王)」³²으로 소개되기도 했다. 방정환은 ‘몽중인’이라는 필명을 사용해서 『긴노후네』의 「試驗問題」를 「과거문제」(『어린이』, 1925.7)로 번역·게재한 것으로 보인다. ‘천자님(天子様)’이 ‘님금’이 되었고 문장 중간 중간 묘사가 더해지기는 했어도 동일한 문장전개를 보이고 있어 번역임을 확인할 수 있다. 천자님이 민가에서 흘러나오는 이상한 노래 소리에 끌려 집을 들여다보는 대목에서 거의 동일한 전개를 확인할 수 있다.

32 漣山人, 「朝鮮のお伽話(其の一)陳張王」, 『少年世界』, 博文館, 1895.2, 299~302쪽.

○「試験問題」

不思議ぢやありませんか。廿五六歳の美しい女が、頭をクルクル坊さんにして、踊つてゐるのです。そしてその側で三十歳ばかりの男が、涙をぼろぼろ流し乍ら悲しそうな聲で、面白可笑しい歌を歌つてゐました。(『긴노후네』 1921.6, 29면)

(번역: 이상한 일도 다 있습니다. 25,6세의 아름다운 여자가 머리를 민승민승 중처럼 깎고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30세정도 되는 남자가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슬픈 목소리로 재미있고 우스운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과거문데」

보닛가 이상한 일도 만치요, 二十五세 되여 보이는 아름답게 생긴 젊은 녀자가 머리는 중처럼 섯빳얏게 깎고 춤을 덩실덩실 추고 잇고 그 옆헤 三十세 쫘된 말른 남자 한 사람이 안저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우는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어린이』 1925.7, 2면)

이 작품을 방정환이 직접 읽고 번역했으리라 추측하는 또 다른 이유는 방정환이 같은 호에 실린 삽화 한 점—혈령한 아버지 양복상위를 걸치고 중절모를 쓴 채 천진하게 웃는 아이—을 가져와 『어린이세상』에 삽화로 사용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방정환은 어떤 이유에서 일본잡지에서 본 조선동화를 번역했을까? 기타 다른 작품의 번역·수용과는 달리 방정환은 일본어잡지 『긴노후네』에서 조선동화를 발견하고 친숙함과 동시에 재화자 오키노의 문장에서 독자적인 재미를 느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방정환과 마찬가지로 동화구연에 능했던 오키노의 문장은 간결하면서도 술술 읽히며 리듬을 느끼게 한다.

동화③ 「착한 할아버지와 나쁜 호랑이」는 독자투고 작품이다. 이미 1920년대 일본어로 출간된 다카하시 도루(高橋亨), 다카기 도시오(高木敏雄),

미와 다마키(三輪環)의 ‘조선동화집’에 「여우의 재판」(「인간과 호랑이의 다툼」)이라는 제목으로 공통으로 실려 있는 작품이다.³³ 『조선동화집』이 다수 유통되고 있는 상황에서 독자가 이야기를 재화해서 투고했다고 볼 수 있다. 투고형식으로 바꾸면서 제목을 바꾸고 등장인물이 부분적으로 달라졌지만 서사전개의 골격은 동일하다.

서사전개)

호랑이의 구출 → 할아버지의 위기 → 재판 4회(나무-소-백로-악어)까지 호랑이가 옳다고 판결 → 마지막 판결자(다람쥐)등장 → 호랑이가 갇힌 상황 재현 → 할아버지의 위기 해소

특이한 점은 「여우의 재판」이나 다른 곳에서는, 대부분 숲 속에 흠을 깊이 파서 설치한 ‘함정’에 호랑이가 빠져 있는데 반해서, 「착한 할아버지와 나쁜 호랑이」에서 호랑이는 길 위에 놓인 ‘우리’에 갇혀 있다는 설정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당시 기타 조선동화집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징이다. 사람들이 오가는 길에 왜 ‘우리’가 놓여 있는지, 호랑이는 왜 ‘우리’에 갇히게 되었는지, 숲 속이 아닌 길에 지나는 이가 할아버지밖에 없었는지 등에 대한 설명은 모두 생략되어 있다. 흥미롭게도 ‘우리’라는 도구는, 방정환의 동화극 『노래주머니』(23.3)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동화가 아닌 무대극으로 꾸미기 위해서 동물우리는 호랑이가 갇힌 상황을 관객에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매우 효과적인 도구이다. 또한 사냥꾼들이 호랑이를

33 高橋亨, 「人虎の争ひ」, 『朝鮮の物語集附俚諺』, 京城: 日韓書房, 1910.1, 38~143면; 高木敏雄, 「狐の裁判」, 『新日本昔噺』, 東京: 敬文館, 1917, 171~179면; 三輪環, 「狐の裁判」, 『伝説の朝鮮』, 東京: 敬文館, 1919, 248~254면.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박종진, 「마쓰무라 다케오」 『일본동화집』 〈조선부〉의 개작양상연구, 『아동청소년문학연구』 16호,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15, 81~117면 참조.

잡아 우리에 넣어 옮기다 물을 마시기 위해 잠시 우리를 길가에 방치한다는 설정을 마련해 두어서 보다 설득력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방정환이 어떤 이야기를 원전으로 동화극을 꾸렸는지 좀 더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밖에 조선이야기에서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악어’ ‘다람쥐’가 등장하는 것에서 일본화가 진행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동화④ 「황금두레박」은 「나무꾼과 선녀」유형에서 ‘나무꾼 승천형’³⁴이다. 메이지기부터 「황금 두레박」 「천인의 날개옷」이라는 제목으로 일찍부터 일본에 알려진 조선 이야기이다.³⁵ 「나뭇꾼과 선녀」가 인물(人)에 관심을 두었다면, 「황금 두레박」이나 「천인의 날개옷」은 이야기에 등장하는 도구(物)에 중점을 둔 제목으로 유통되었다는 점이 흥미롭다. 일본에서 유통된 이야기는 대부분 ‘나무꾼 승천형’으로 나무꾼이 구해주는 동물은 ‘원숭이, 멧돼지, 노루’ 등 다양하다. 또한 아이가 둘인 경우, 셋인 경우도 있고, 선녀가 날개옷을 입고 하늘로 올라갈 때 아이를 데리고 가지 않아서 나중에 나무꾼이 승천하면서 데리고 올라가는 이야기도 있다. 『긴노후네』에서 나무꾼이 구해주는 동물인 노루는 시종 나무꾼을 ‘총각(總角さん)’이라고 부르며 본문 중에 “총각이라는 것은 조선어로 청년을 말한다.”고 용어설명까지 한다. 그러나 삽화에는 갓을 쓴 어른으로 그려져 있어 내용과 삽화의 불일

34 김환희, 「김환희와 함께하는 옛이야기 공부(9)－「나무꾼과 선녀」 전승이 가르쳐 준 빼아픈 교훈」, 『창비어린이』 13(2), 창비, 2015.6, 193~213면. “국문학자들은 「나무꾼과 선녀」의 하위 유형을 보통 네 가지로 나눕니다. 날개옷을 찾은 선녀가 승천하는 데서 이야기가 끝나는 ‘선녀 승천형’, 나무꾼이 두레박을 타고 올라가는 대목에서 이야기가 끝나는 ‘나무꾼 승천형’, 나무꾼이 천상에서 장인이 내준 과제를 치르고 행복한 삶을 사는 ‘천상 시련 극복형’, 천상계에 살던 나무꾼이 어머니가 그리워서 지상에 왔다가 수탉이 되는 ‘수탉 유래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나무꾼과 선녀 동반 하강형’, ‘나무꾼 시신 승천형’, ‘빼꾸기 유래형’, ‘견우직녀형’, ‘수수 유래형’으로 부를 수 있는 다른 각편들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유형 가운데서 제가 교과서에서 읽은 이야기는 서사의 짜임새가 가장 영성한 ‘나무꾼 승천형’이었습니다.”

35 屋上新兵衛, 「黄金の釣瓶」, 『少年世界』3(17), 博文館, 1897; 榎本秋村, 「天人の羽衣」, 『世界童話集—東洋の巻』, 實業之日本社, 1918; 巖谷小波, 「天人の羽衣」, 『教訓お伽夜話(後編)』, 博文館, 1920; 藤森淳三, 「黄金の釣瓶」, 『小人國の話』, 實業之日本社, 1926.



[그림 4] 「황금두레박」, 「긴노후네」(1922.11)
노루를 숨기고 포수에게 엉뚱한 방향을 가리키는 젊은이.

치가 나타난다. 조선의 이야기와 다른 점이라면 오키노의 재화에서는 선녀의 아버지가 開天弘聖帝様로 되어 있기도 하고, 선녀들이 까마득한 절벽 위에 옷을 걸어두고 천길 낭떠러기 아래 못으로 뛰어든다는 식으로 변형되어 있다. 오키노는 일본 미호 마쓰바라(三保の松原)의 날개옷 이야기 역시 재화로 보고 있다.³⁶

동화⑨ 「떡보」는 떡을 좋아하는 이현상이 중국에 사신으로 가는 이야기인데, 미와 다마키의 『전설의 조선(伝説の朝鮮)』(博文館, 1919)에 실린 「餅食ひ」와 같은 내용이다. 이야기 변형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지만, 잡지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동화를 찾아 소개하는 코너인 「세계동화란」³⁷에 실렸다. 3년 뒤 같은 코너에 실린 것이 동화⑩ 「세계제일장사」이다.

(2) 삽화에 의한 이미지 환기

근대 잡지미디어에서는 “게재한 문장의 영상적 설명과 오락성의 강조를 위해”³⁸ 삽화를 효과적으로 이용했다. 즉 독자들이 문장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삽화가 활용되었던 것이다. 인쇄기술이 발달하면서 대량인쇄와 다색 인쇄가 가능해지고 잡지에서 삽화는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 요소가 되었다.

36 『긴노후네』, 제4권제11호, 1922.11, 11면.

37 「세계동화란」, 『金の星』(27.8)부터 시작된 권말코너. “좋은 이야기이면서 많이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나, 고쳐 쓴다면 훌륭한 이야기가 될 것 같은 것들을 널리 찾아서 소개하는 것이 이 란의 임무입니다. 편집부에서 齋藤佐次郎, 久米鰲一, 두 분이 주로 담당해줍니다. 한, 두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니 동화를 좋아하는 분들의 조력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일본 이야기를 힘을 다해 소개하고 싶습니다.”

38 上笙一郎, 『日本の童畫家たち』, 平凡社, 2006, 17면.

오늘날의 잡지와 달리 다이쇼기의 아동잡지는 한 사람내지는 두 사람의 화가가 표지, 권두화, 삽화, 장식화 등 잡지의 그림부분을 전담하고 있었는데, 『아카이토리』(赤い鳥社)는 시미즈 요시오(清水良雄), 『도와』(コドモ社)에서는 가와카미 시로(川上四郎)가 전속화가로 활약했다. 『긴노후네』의 삽화 담당자는 오카모토 기이치(岡本歸一)였다. 그 가운데 오카모토는 『긴노후네』뿐만 아니라 『고도모노쿠니』까지 양대 잡지를 전담했다. 그만큼 당시 어린이와 어른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³⁹⁾는 말이 될 것이다

새삼 말할 필요도 없이 아동잡지에서 삽화는 작품인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목록에 적은 조선동화 대부분은 삽화와 함께 소개되어 내용전달을 넘어서 본문을 읽지 않더라도 독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고, 흥미를 끌며 이야기 전달력을 강화시켰다.

『긴노후네』에서 표지를 장식한 오카모토의 서양풍의 화려하고 몽환적인 그림은 귀엽고 순수한 아동 이미지를 전형화 시키고 확대시키는 역할을 했다. 이에 비해 잡지 속 동화 삽화에는 일그러지고 찌그러진 우스꽝스러운 표정, 과장된 동작이 들어있어 이야기에 역동성과 사실성을 더해주고 있다. 내용 전달을 넘어서 이야기의 인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오카모토는 조선동화의 삽화에서는 주로 복장을 주요 상징물로 사용했다. 무엇보다 확연하게 조선이야기임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동화① 「작은 이의 숲」에서 주인공 이팽은 ‘갓’을 쓰고 두루마기에 버선발로 다닌다. 땀이 부풀어 오르는 병에 걸려 의사의 처방대로 숲 속을 찾아간 이팽은 신비한 나무 아래 모여든 작은이들 앞에서 팔다리를 허우적거리며 우스꽝스럽게 춤을 춘다. 익숙지 않은 춤을 추며 힘겨워하는 표정이 생생하게 주인공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39 上笠一郎, 위의 책, 52면.



[그림 5] 「작은 이의 숲」, 긴노후네, (1920.3)
나무에 올라가 작은이들이 오기를 기다리는 모습.



[그림 6] 「작은 이의 숲」, 긴노후네, (1920.3)
두 번째 보름날 작은이 앞에서 이팽이 춤을 추고 있다.

이팽의 춤을 지켜보는 작은 이들은 이세계의 존재들이므로 조선복장은 아니다. 어딘가 중국 ‘풍’의 느낌을 준다. 오카모토는 때때로 조선과 중국의 복장을 한 작품에 뒤섞어 그리기도 하면서 화가 자신이 조선과 중국에 대해 지닌 이미지가 실제적인 모습의 표상이 아닌 화가의 내면에 상징화 되어 있는 이미지의 표현임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상징성은 다른 작품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동화④ 「황금 두레박」에서 노루가 ‘총각’이라고 부르는 나무꾼 총각도 갓을 쓰고 있다(그림4). 물 깎는 마을 청년⁴⁰도 갓을 쓰고 있고(그림7), 심지어 산 속에서 시커먼 솟을 다루는 솟쟁이⁴¹도 흰 두루마기에 갓을 쓰고 있는 모습으로 형상화되어 있다(그림8).

다른 동화의 삽화에서 직위와 성별, 신분에 따라 다양한 복장이 등장하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조선 사회에도 직위와 직업에 따른 다양한 구

40 沖野岩三郎作/岡本歸一繪, 「水汲み」, 『金の船』 제4권10호, 金の星社, 1922.10, 22쪽.

41 久米正雄作/岡本歸一繪, 「大豹あらはる」, 『金の船』 제7권11호, 金の星社, 1925.11, 13쪽.



[그림 7] 沖野岩三郎, 「물汲기」, 『긴노후네』(1922.10)



[그림 8] 久米正雄, 「큰표범나타나다」, 『긴노후네』(1925.11)

별이 있다는 것은 물론 채 일정하게 변형된 혹은 상징화된 조선이미지가 형성·유포되어 있으며, 잡지에서조차 ‘갯’으로 단순화된 상징성만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도 특징으로 볼 수 있다.

5. 나가며

지금까지 일본 근대 아동문예잡지 『긴노후네』에 게재된 조선동화 12편의 내용을 소개하고 시대적·사회적 배경을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잡지에 게재된 조선동화의 특징을 문장과 삽화를 통해 고찰했다.

『긴노후네』 창간호부터 사이토가 편집에서 손을 떼는 1928년까지 총12편의 조선동화를 찾아낼 수 있는데, 조선동화 게재시기는 1920년대를 전후한 일본 아동문학의 융성기에 근대 잡지들이 가장 활발히 출간되고 많은 독자를 확보했던 때였다. 또한 『긴노후네』 편집부가 22년에 설치한 동화·동요강연부 활동 가운데 조선순회강연은 일본 독자들에게 조선의 모습을 전달하는 창구역할을 했다. 「흑부리」, 「선녀와 나무꾼」, 「토끼의 재판」 등 조선동화가 실린 것은 2,3년에 불과하지만, 조선동화에 대한 작가

와 독자들의 관심이 두드러졌던 시기였다고도 할 수 있다.

12편을 재화한 작가의 서술방식은 동일하지 않았지만, 대부분 기존에 일본에 유포되어 있던 조선동화를 바탕으로 서사전개를 크게 변형시키며 재화라기보다 창작에 가까운 작품이 많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서사 전개나 사용도구, 등장인물이 과감하게 변형되면서 조선동화는 재화에서 창작으로 나아가는 과도기적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

조선동화의 특징의 하나는 또한 삽화를 통해서도 확인되는데, 등장인물의 직위, 나이, 직업에 상관없이 ‘갓’을 쓴 어른의 모습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실제 살아 움직이는 조선의 모습과는 무관하게 ‘갓’으로 상징되는 조선이미지가 삽화를 통해 재생산되고 있다.

편집을 주관했던 사이토 사지로는 잡지 내에 특별히 엄격한 통일성이나 편집 체재를 강요하지 않았는데, 이런 편집철학에서 작가들의 자유로운 글쓰기가 상당히 폭넓게 수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조선동화를 소개하고 서사전개를 보기 위한 것으로, 『긴노후네』에 수록된 전체 동화의 흐름 속에서 살펴보는 관점으로는 자세하게 고찰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문을 통해 논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雑誌 金の船=金の星復刻版』, ほるぷ出版, 1983.

『雑誌金の船=金の星復刻版別冊解説』, ほるぷ出版, 1983.

2. 논문 및 평론

김경희, 「방정환 ‘귀신동화’의 형성과 의미 연구」, 『국문학연구』 제32호, 국문학회, 2015, 247~277면.

김영순, 「『어린이』지와 일본 아동문예잡지에 표상된 동심 이미지 고찰」, 『현대문학의 연구』 62, 한국문학연구학회, 2017, 7~57면.

김환희, 「김환희와 함께하는 옛이야기 공부(9) - 「나무꾼과 선녀」 전승이 가르쳐 준 뼈아픈 교훈」, 『창비어린이』13(2), 창비, 2015.6, 193~213면.

김효주, 「1920년대 여행기의 존재 양상」, 『국어교육연구』 48, 국어교육학회, 2011.2, 317~354면.

박종진, 「〈왕자와 제비〉에 나타난 방정환의 내러티브-번역과 서사변형의 특징」, 『한국아동문학연구』 제30호, 한국아동문학학회, 2016.97~125면.

박종진, 「방정환의 번역작품 연구 「귀먹은 집오리」와 「불노리」를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제35집, 한국근대문학학회, 2017, 203~233면.

박종진·최경희, 「1920년대 아동 자유화운동과 아동문예잡지-『어린이』와 『긴노후네』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문학연구』 제33호, 한국아동문학학회, 2017, 89~118면.

엄희경, 「근대 어린이 이미지의 발견과 번역·변안동화집」, 『현대문학의 연구』 62, 한국문학연구학회, 2017, 59~117면.

이재철, 「韓日兒童文學의比較研究」, 『韓國兒童文學研究』創刊號, 韓國兒童文學學會, 1990.7, 7~20면.

이정현, 『方定煥의翻譯童話研究:〈サラエソンムル〉を中心に』, 大阪大學박사학위논문, 2008.

장정희, 「조선동화의 근대적 채록 과정 연구 I」, 『한국학연구』 57, 고려대한국학연구소, 2016.6, 303~332면.

장정희·박종진, 「근대 조선의 『한네레의 승천』 수용과 방정환」, 『동화와 번역』 제30권, 건국대동화와번역연구소, 2015, 215~243면.

조경숙, 「메이지기 아동잡지 『소년세계』와 조선」, 『일본학보』89, 한국일본학회, 2011.11, 191~204면.

조희웅, 「일본어로 쓰여진 한국설화/한국설화론(1)」, 『어문학논총』 24, 국민대어문학연구소, 2005, 1~26면.

3. 단행본

- 김광식·이시준, 『식민지시기 일본어 조선설화집 기초적연구』, 제이앤씨, 2014.
- 大竹聖美, 『植民地朝鮮と兒童文化—近代日韓兒童文化・文學關係史研究』, 社會評論社, 2008.
- 沖野岩三郎, 『薄氷を踏みて』, 大阪屋號書店, 1923.
- _____, 『童話の創作と實演』, 訓導生活社, 1937.
- 上笠一郎, 『日本の童畫家たち』, 平凡社, 2006.
- 菅忠道, 『日本の兒童文學1 總論 増補改訂版』, 大月書店, 1956.
- 小林弘忠, 『〈金の船〉ものがたり』, 毎日新聞社, 2002.
- 齋藤佐次郎, 『齋藤佐次郎・兒童文學史』, 金の星社, 1996.
- 佐藤宗子, 『「家なき子」の旅』, 平凡社, 1987.
- 漣山人, 『少年世界』 제1권 제3호, 博文館, 1895.2.
- 大阪國際兒童文學館編, 『日本兒童文學大事典第一卷』, 大日本図書, 1993.
- 高木敏雄, 『童話の研究—その比較と分析』, 婦人文庫刊行會, 1916.
- _____, 『新日本昔噺』, 東京:敬文館, 1917.
- 高橋亨, 「人虎の爭ひ」, 『朝鮮の物語集附録談』, 京城:日韓書房, 1910.
- 鳥越信編, 『新選日本兒童文學1』, 小峰書店, 1959.
- _____, 『はじめて學ぶ日本兒童文學史』, ミネルヴァ書房, 2001.
- 平林武雄, 「『金の船』=『金の星』と沖野岩三郎」, 『雜誌金の船=金の星復刻版別冊解説』, はるぶ出版, 1983, 153면.
- 松村武雄, 『童話及び兒童の研究』, 培風館, 1922.
- 三輪環, 「狐の裁判」, 『伝説の朝鮮』, 東京:敬文館, 1919.
- 屋上新兵衛, 「黄金の釣瓶」, 『少年世界』3(17), 博文館, 1897.
- 榎本秋村, 「天人の羽衣」, 『世界童話集—東洋の巻』, 實業之日本社, 1918.
- 巖谷小波, 「天人の羽衣」, 『教訓お伽夜話(後編)』, 博文館, 1920.
- 藤森淳三, 「黄金の釣瓶」, 『小人國の話』, 實業之日本社, 1926.

Abstract

In the 1920s, Japanese Children's Literary Magazines
“KINNOFUNAE” and Choseon Donghwa

Park Jongjin

In this paper, I introduced and analyzed the contents of 12 Choseon Donghwa in the Japanese modern literary magazine “KINNOFUNAE”, and examined the social and the historical background. It also describes the characteristics of choseon Donghwa and its implications through sentences and illustrations.

It was only a few years after the launch of the book, “The lump”, “Maiden and Woodcutter” and “Rabbit’s judgment” and other stories of Choseon were published intensively. However, since magazine activities are most active and diverse, it was time to secure readers. Not only was the awareness of the Choseon Donghwa highly influenced by the storybook of the Choseon Donghwa, which was published in the past, but also the lecture on the Choseon Donghwa of the “Dowa telling Department, Dongyo singing Department” did. It can be said that the Choseon Donghwa shows the transition from the re-wrire to the creative. The characteristics of Choseon Donghwa are that the Choseon Donghwa is transforming through the use of the goods, and it is confirmed that the images of the Choseon Donghwa are formalized and symbolized through the illustrations.

■ Keywords: Choseon, Choseon Donghwa, Fairytale, KINOFUNE, Dowa telling
Department Okino Iwasaburo, Media event

■ 논문접수일: 2018. 05. 15. / 심사기간: 2018. 05.28~06.08. / 게재확정일: 2018. 06.10.